Korean Journal of Clinical Dental Hygiene

Original Article

일부 치위생과 대학생의 DISC행동유형에 따른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세영
가톨릭상지대학교 치위생과

Mental Health According to DISC Behavioral Types in Dental Hygiene Students

Se-Young Han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atholic Sangji College, Andong 36686, Korea

*Corresponding Author: 한세영, (36686) 경상북도 안동시 상지길45 가톨릭상지대학교 치위생과, Tel: (054) 851-3192, Fax: (054) 851-3246, E-mail: syhan111@hanmail.net

Received: April 08, 2024
Revised: May 20, 2024
Accepted: May 20, 2024

Abstract

Objective: By ident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al health, DISC behavioral types, and stress in clinical practice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this study aimed to provide a reference base for developing a variety of tailored educational programs for mental health promotion. **Methods:** We conducted a survey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distributed to dental hygiene students enrolled in three colleges located in Gyeongsangbuk-do Province between February 19 and 29, 2024. **Results:** The subjects'mean mental health score was 66.27±36.04. A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mental health and each variable established that mental health ha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behavior types, an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clinical practice stress. Factors affecting mental health were selected as significant variables, these variables explained 23% of the variance. **Conclusions:** To strengthen the mental health of dental hygiene students in today's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a variety of tailored education programs need to be developed and applied by identifying emotional factors influencing students'mental health.

Key words: DISC behavioral types, Mental health, Stress of clinical practice

색 인: DISC 행동유형, 정신건강, 임상실습스트레스

Copyright © 2024 by Korean Journal of Clinical Dental Hygien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1. 서론

청소년기에서 성인으로 이어지는 대학생들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 내적변화, 취업준비 등 여러 유형의 변화라는 스트레스 요인을 경험하게 되는데(1), 이 때 노출되는 적정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적정 수준을 넘어선 긴장과 부담을 겪게 된다(2). 그러므로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측정하고 이들의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확인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치위생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임상실습은 이론적 지식과 이해를 임상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필수 교육과정으로 치과위생사로서 원활한 역할을 수행하여 전문 치과위생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3). 임상실습의 중요성을 인지함에도 치위생과 학생들이 실습 시 경험하는 익숙치 않은 병원 환경, 대인관계형성 능력 부족, 부족한 임상수행능력으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어 관리되지 않은 스트레스는 죽음과 자살에 대한 생각까지 발생하여 심리적 장애를 초래하는 정신건강에 위협적인 요소가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4). 또한 행동유형이나 성격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와 인지 등을 결정하고(5) 행동유형은 불안이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어(6) 낯선 환경의 임상실습 상황에서 치위생과 대학생의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하여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행동유형에 따라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과 상황에 맞는 태도로 자신을 표현하여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된다(7). 따라서 치위생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행동유형을 잘 파악하여 관리하면 임상실습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고 정신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최근에는 개인의 내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효과적이라고 제시하고 있다(8).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있을 때 감정표현이 부족하고 무력감을 느끼는 것은 암의 피해자에게 기인한 특성이라고 보고되고 있다(9). 이러한 개인의 성격과 행동유형과 관련하여 개인 상호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통한 인간관계 향상 및 조직 활성화를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성격유형 및 행동유형을 측정하는 척도로 애니어그램, MBTI, LIFO, DISC 등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10, 11). 하지만 애니어그램, MBTI 모형은 DISC 행동유형보다 세분화되고 신뢰도가 높지만 일반인들이 여러 분야에 널리 활용하기에는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12). 반면 DISC 행동유형은 현재 진단이 용이하고 간편하게 사람의 행동유형을 설명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로 활용되고 있다(13). 학생들의 DISC 행동유형을 파악하여 스스로 자신의 약점을 최소화하고 강점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개개인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교육적 측면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10). 또한 임상실습 스트레스로 학업을 포기하고 부정적 진로의식을 갖지 않도록 행동유형별 심층적 상담을 통해 치위생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치위생 전문직에 대한 건전한 정신건강 성장을 가질 수 있도록 치위생 교육현장에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치위생과 학생들에게 DISC 행동유형에 따른 정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치위생과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선행 연구는 많은 연구자에 의해 보고되고 있지만(14, 15) DISC 행동유형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등의 변수를 사용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네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행동유형,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치위생과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증진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치위생과 대학생의 행동유형,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치위생과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임상실습관련 특성에 따른 행동유형,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의 차이를 파악한다.

2) 치위생과 대학생의 행동유형,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간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치위생과 대학생의 정신건강과의 관련요인을 파악한다.

https://doi.org/10.12972/kjcdh.20240012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한 경상북도에 소재한 3개 대학 치위생과 2, 3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4년 2월 19일부터 29일까지 편의표본 추출하여 자기기입방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40명 중에서 불완전하게 응답한 15부를 제외한 22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연구방법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였고, 일반적 특성 및 임상실습관련 특성 11문항, 행동유형 40문항, 임상실습 스트레스 24문항, 정신건강 47문항을 포함하여 총 12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행동유형은 Marston WM의 도구를 기초하여 Boyd CF(16)가 개발한 도구를 한국인에게 타당도를 확인한 Kim MH(17)의 도구를 중복되고 요인 부하량이 낮은 2문항을 제외 한 Lim WS(18)의 행동유형 척도를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40문항의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유형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각 행동유형 점수의 합을 계산하여 주도형인 D형, 사교형인 I형, 안정형인 S형, 신중형인 C형으로 분류한다. Lim WS(18)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0.73였고, 본 연구에서는 각 유형의 Cronbach's α=0.80이었다.

임상실습 스트레스 측정은 Beck DL and Srivastava R(19)가 개발한 척도를 Lee JE와 Kim SL(20)가 사용한 도구를 Kim SM과 Hwang TY(21) 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24개의 문항으로 실습교육 환경,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 실습업무 부담, 대인관계 갈등, 환자와의 갈등으로 5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뉜다.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긍정적인 점수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Lee JE와 Kim SL(20)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0.9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0.89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은 Derogatis LR et al.(22)에 의해 개발된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SCL-90)의 한국어판 도구를 LEE HK(23)가 요인분석하여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SCL-47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의 하위변인은 신체화, 강박증, 대인관계 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의 9개의 임상척도로 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증상마다 대상자는 당일 포함하여 지난 7일 동안 경험한 증상에 따라 4점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측정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정신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을 의미한다. LEE HK(23)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0.91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0.88이었다.

2.3. 통계분석

본 연구는 SPSS for Window version 23.0 (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하였고, 각 독립변수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실시하였으며, Scheffe로 사후 검정하였다. 정신건강과 관련된 변수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각 독립변수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하였으며, 모든 통계량의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https://doi.org/10.12972/kjcdh.20240012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분포는 성별은 여성 군 96.0%로, 학년은 2학년 이하 군 51.6%로, 종교는 없는 군 79.1%로, 학과 선택동기는 취업률 군 68.0%로, 전공만족도는 만족 군 92.9%로,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 군 52.4%로 그렇지 않은 군보다 높은 분포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Variables	Division	N(%)
Gender	Male	9(4.0)
	Female	216(96.0)
Grade (yr)	≤2nd	116(51.6)
	3rd≤	109(48.4)
Religion	Yes	47(20.9)
	No	178(79.1)
Motivation for entering college	Employment rate	153(68.0)
	Aptitude	23(10.2)
	Recommendation	29(12.9)
	Other	20(8.9)
Major satisfaction	Satisfy	209(92.9)
	Dissatisfy	16(7.1)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118(52.4)
	Moderate	86(38.2)
	Unhealthy	21(9.3)
Total		225(100)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대상자의 정신건강은 66.27±36.04점을 보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은 전공만족도가 만족하는 군(p=0.014)에서,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한 군(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사후검정결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건강하지 못한 군에서 가장 높았고 건강 군에서 낮아 정신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istribution of mental health by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N	Mean±SD	F/t	*p*-value
Gender			0.674	0.514
Male	9	66.46±36.60		
Female	216	61.89±18.86		
Grade (yr)			0.181	0.856
≤2nd	116	66.69±36.27		
3rd≤	109	65.82±35.97		
Religion			-1.287	0.199
Yes	47	60.26±31.78		
No	178	67.85±37.01		
Motivation for entering college			1.565	0.107
Employment rate	153	62.56±36.56		
Aptitude	23	69.09±33.31		
Recommendation	29	79.10±35.73		
Other	20	72.75±32.24		
Major satisfaction			-2.472	0.014*
Satisfy	209	64.64±35.30		
Dissatisfy	16	87.50±40.08		
Subjective health status			30.94	0.000**
Healthy[a]	118	52.70±30.18	a<b<c	
Moderate[b]	86	74.85±34.44		
Unhealthy[c]	21	107.33±31.78		
Total	225	66.27±36.04		

*p<0.05, **p<0.01
by t-test or one way ANOVA
[abc]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scheffe test

3.3. 임상실습관련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임상실습관련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은 임상실습 만족도가 만족하는 군(p<0.01)에서 임상실습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사후검정결과, 임상실습 만족이 불만족 군에서 가장 높았고 만족 군에서 낮아 정신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https://doi.org/10.12972/kjcdh.20240012

Table 3. Distribution of mental health by clinical practice

Variables	N	Mean±SD	F/t	*p*-value
Type of clinical practice			.804	.422
Dental hospital	98	68.47±34.82		
Dental clinic	127	64.57±37.01		
Clinical practice period (weekly)			.360	.719
≤4	218	66.42±36.31		
5≤	7	61.43±28.35		
Residence during clinical practice			10.668	.052
Living with parents	140	59.37±33.89		
Living alone	44	86.93±37.78		
Other	41	67.63±32.10		
Staff conflict			.874	.383
Yes	36	71.08±36.80		
No	189	66.35±35.92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8.974	.000**
Satisfaction[a]	99	59.44±30.46	a<b<c	
Moderate[b]	100	66.34±37.51		
Dissatisfaction[c]	26	91.96±39.52		
Total	225	66.27±36.04		

*p<0.05, **p<0.01
by t-test or one way ANOVA
[abc]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scheffe test

3.4. 행동유형,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건강

행동유형은 사교형이 48.0%로 가장 많았으며, 안정형 24.9%, 주도형 14.2%, 신중형 12.9%의 순이었다.

행동유형에 따른 정신건강은 신중형 군(p<0.01)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낮은 군(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은 신중형보다 높게 나타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Distribution of mental health by DISC behavioral styles and stress of clinical practice characteristics

Variables	N	%	Mean±SD	F/t	*p*-value
DISC behavioral types				9.026	000**
Dorminance[a]	32	14.2	78.09±39.52	a,b,c>d	
Influence[b]	108	48.0	70.48±36.36		
Steadiness[c]	56	24.9	66.70±33.39		
Conscientiousness[d]	29	12.9	36.69±17.00		
Stress of clinical practice				-6.453	000**
Low	103	45.8	50.74±24.15		
High	122	54.2	79.38±39.18		
Total	225	100.0	66.27±36.04		

*p<0.05, **p<0.01
by t-test or one way ANOVA
[ab]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scheffe test

3.5. 행동유형,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간의 상관관계

정신건강에 따른 행동유형(r=-0.132, p<0.01)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임상실습 스트레스(r=0.460, p<0.01)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5).

Table 5. Correlations among mental health matrix of variables

Variables	DISC behavioral types total	Stress of clinical practice	Mental health
DISC behavioral types total	1		
Stress of clinical practice	0.100	1	
Mental health	-0.132**	0.460**	1

*p<0.05, **p<0.01
by the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3.6. 정신건강 관련요인

정신건강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동유형,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정신건강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6와 같다.

먼저 다중회귀분석에 앞서 다중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검증한 결과 Durbin-watson통계량이 1.155로 자기상관성의 문제가 없었고, 공차한계(Tolerance)는 0.990로 0.1이상이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10으로 기준값인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은 충족되었다. 회귀모형의 F값은 35.80, p<0.01로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 R^2(adj. R^2)=0.24(0.23)로 회귀모형은 행복지수에 대한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23%였다.

치위생과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의 준거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정신건강에 유의하게 관련을 미치는 예측요인은 임상실습 스트레스(β=0.47, p<0.01), 행동유형(β=-0.18, p=0.002)순으로 나타났다(Table 6).

Table 6.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mental health and related factors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75.023	23.671		3.17	0.002*
DISC behavioral types	-0.64	0.21	-0.18	-3.06	0.002*
Stress of clinical practice	1.07	0.13	0.47	8.15	0.000**
R^2=0.24, Adj R^2=0.23, F=35.80 (<0.01)**					

*p<0.05, **p<0.01 by multiple regression

4. 고안

본 연구는 치위생과 대학생의 DISC 행동유형,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의 관계를 파악하고, 행동유형,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향후 치위생 교육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치위생과 대학생의 정신건강은 66.27점이었는데, 이는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Park GO와 Kim YS(24)의 연구에서 평균평점 1.56점으로 평균 73.3점으로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치위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Choi DH와 Kim SK(25)의 연구에서 평균평점 1.47점으로 평균 69.0점으로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은 치위생과 대학생에 비해 과중한 학업, 임상실습에서의 환자간호에 대한 무거운 책임 및 지식 부족 등

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함으로 정신건강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다양하게 모색되어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치위생과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임상실습관련 특성요인으로 정신건강은 전공만족도가 만족하는 군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건강한 군에서, 임상실습 만족도가 만족하는 군에서 유의하게 낮아 정신건강 수준에 문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인 Yu EY 등(26), Moon H 등(27), An HG(28)의 연구에서 일치하는 결과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의 일상생활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학교 생활의 전공만족도는 학생 개인의 생활만족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일상생활 만족도가 높아 정신건강도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차이를 보인 Choi HJ와 Jun SK(15), An HG(28)의 연구에서 일치하는 결과로, 주관적 건강상태는 정신건강을 높이기 위한 기본 조건이기에 심신을 단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행, 운동 등 효과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임상실습 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인 An HG(28)의 연구에서와 유사한 결과로 임상실습 동안 다양한 대상자와 긍정적으로 소통하면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아 정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어 효과적인 임상실습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치위생과 대학생의 행동유형은 사교형이 가장 많았으며, 안정형, 주도형, 신중형의 순이었다. 이는 치위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Lee SH와 Shim HJ(29)의 연구,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Kim EK 등(30)의 연구, 만화애니메이션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Kim S(11)의 연구에서는 사교형이 가장 많은 유형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한 결과이다. 자동차 회사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연구한 Yu HJ(12)의 연구,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Lim WS(18)의 연구에서는 신중형이 가장 많은 유형으로 나타나 다소 상이한 결과로 업무 환경이나 직무 특성의 외적 요인에 의해 행동유형의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행동유형을 바탕으로 볼 때 본 연구에 참여한 치위생과 대학생들은 사교형이 가장 많았으므로 타 집단에 비해 자신을 인정해 주는 환경에서 동기를 느끼는 사교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집단임을 추축해 볼 수 있어 동기부여를 강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지도하여 긍정적 결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된다.

치위생과 대학생의 행동유형이 신중형 군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낮은 군에서 정신건강이 유의하게 낮아 정신건강 수준에 문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Kim YJ 등(31)의 연구에서는 사교형에서 유의하지는 않지만 정신건강이 가장 낮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이다. 신중형은 충분히 생각하고 행동을 하다 보니 감정기복이 심하지 않아 정신건강이 양호할 것으로 생각된다. An HG(28)의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나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한 결과이다. 임상실습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적응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등을 활용한 임상실습 교육 모형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치위생과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따른 행동유형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임상실습 스트레스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행동유형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확인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행동수준이 좋을수록 정신건강이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Park GO와 Kim YS(24), An HG(28)의 연구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나쁘다는 연구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치위생과 대학생의 정신건강 관련 요인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 행동유형순으로 영향력이 있었고, 총 설명력은 23%로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Kim YJ 등(31)의 연구에서와 유사한 결과이다. 치위생과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유형의 특성을 고려하고,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이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치위생과 대학생의 행동유형,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과 관계가 있음을 파악하였고, 행동유형,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여 치위생과 대학생의 정신건강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행동유형,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조절하여 정신건강을 유지증진 시킬 수 있는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가져오는 것은 치위생과 대학생으로서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하게 하고 임상현장에 적응력을 높일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개 대학 치위생과의 대학생을 편의표집 하였고,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 중 극히 일부 변인만을 포함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한 측정도구들은 표준화된 도구지만 응답자의 주관적 자기기입법에 의존하여 측정, 수집되었기 때문에 응답편의가 개재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1) 치위생과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대상자의 수와 범위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2) 치위생과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행동유형, 임상실습 스트레스 외에 다른 변수들을 찾아내어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제언한다.

3) 치위생과 대학생의 정신건강을 높이기 위해 행동유형,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 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경상북도 지역에 소재한 3개 대학 치위생과 2,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행동유형,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신건강에 대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분석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정신건강은 66.27±36.04점으로 나타났다.

2. 일반적 특성 및 임상실습관련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은 전공만족도가 만족하는 군에서(p=0.014),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한 군에서(p<0.01),, 임상실습 만족도가 만족하는 군에서(p<0.01)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3. 대상자의 행동유형은 사교형이 48.0%로 가장 많았으며, 행동유형에 따른 정신건강은 신중형 군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낮은 군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p<0.01).

4. 정신건강과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행동유형(r=-.132, p<0.01)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임상실습 스트레스(r=.460, p<0.01)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5. 다중회귀분석 결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행동유형,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유의한 변수로 선정되었으며 이들 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23%이었다.

따라서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치위생과 대학생의 정신건강 강화하기 위해서는 행동유형,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 차이를 치위생 교육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서적 요인을 확인하여 맞춤형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uthor contributions

Conceptualization, Data curation, Formal analysis, Funding acquisition, Investigation, Methodology, Supervision, Validation, Writing—original draft, Writing—review & editing: Se-Young Han

References

1. Steinhardt M, Dolbier C. Evaluation of a resilience intervention to enhance coping strategies and protective factors and decrease symptomatology. J Am Coll Health 2008;56(4):445-453. 10.3200/JACH.56.44.445-454.
2. Chu MS, Lee YR, Kim SH. Nursing student's stress level, source and coping. J Korean Acad Soc Care Nurs 2012;19(2):195-203.

3. Park IS, Lee SH.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clinical training according to dental hygienist duties. J Dent Hyg Sci 2007;7(4):295-302.
4. Cha SK, Lee EM. Comparison of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 between nursing and other major student.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4;20(4):650-658. 10.5977/jkasne.2014.20.4.650.
5. Jang SY, Kim SJ, Kim YJ, Suh IY, Song CR, Oh HK, et al. Level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according to nursing students' personality/behavior types.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2017;14(2):81-89. 10.16952/pns.2017.14.2.81.
6. Song Y. Difference in level of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according to behavioral types (DiSC)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4;16(2):1115-1124.
7. Jeon MK, Oh KO. Prediction structure model of mental health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15(2):251-262. 10.14400/JDC.2017.15.2.251.
8. Im YS, Kim JH, Kwon HJ. Relationships among bullying in workplace, burnout,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korean physician assistant nurses. Jour. of KoCon.a 2016;16(2):703-713. 10.5392/JKCA.2016.16.02.703.
9. Eysenck HJ. Individual differences, stress, and health psychology. New York, NY: Springer New York;1988:129-145.
10. Lee YH.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ollege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DISC behavior pattern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5;15(2):523-538.
11. Kim S. A study of DISC behavior patterns on satisfaction difference of comic-animation departments students: focusing on satisfaction in the major and satisfaction of the university life. Cartoon & Animation Studies 2017;47:217-239. 10.7230/KOSCAS.2017.47.217.
12. Yu HJ. A study on differences of education satisfaction by DiSC behavior patterns[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Education;2005.
13. Kim YO, Seo HO. Disc behavior types efffect on the quality of service and customer satisfaction in the skin care shop. J Invest Cosmetol 2020;16(4):403-412.1015810/jic.2020.16.4.011.
14. Jeon ES, Hwang SH, Ko HJ. Factors which affect mental health of dental hygiene students. J Dent Hyg Sci 2014;14(3):424-432. 10.17135/jdhs.2014.14.3.424.
15. Choi HJ, Jun SK. Impact of self-esteem and test anxiety on mental health in students of dental hygienic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2012;13(1):77-87.
16. Boyd CF. The Family Discovery Profile Manual. Oregon:Multnomah;1994:3-250.
17. Kim MH. A study on the marital satisfaction level and the parenting styles related to married couple's DISC behavioral model[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College of Child Welfare;2003.
18. Lim WS. A study on health promotion behaviors and health conditions related to DISC behavior characteristics[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Kyung Hee University College of Public Administraion;2009.
19. Beck DL, Srivastava R. Perceived level and sources of stres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 Nurs Educ 1991;30(3):127-133. 10.3928/01148-4834-19910301-08.
20. Lee JE, Kim SL.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05;11(1):98-106.
21. Kim SM, Hwang TY. Comparison of stress levels arising in clinical settings, stress coping mechanisms and clinical competency between male and female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4;20(4):606-616. 10.5977/jkasne.2014.20.4.606.

22. Derogatis LR, Lipman RS, Covi L. SCL-90: An outpatient psychiatric rating scale-preliminary report. Psychopharmacol Bull 1973;9(1):13-28.
23. Lee HK. Psychological maturation of high school graduates. The Journal of the Humanities 1986;56(56):145-166.
24. Park GO, Kim YS. Stress of clinical practice, self-concept, mental health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3;15(4):2149-2163.
25. Choi DH, Kim SK. Effect of mental health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test anxiety in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20;20(5):697-706. 10.13065/jksdh.20200064.
26. Yu EY, Choi HY, Park IS. The effects of the college life stress on the mental health of health university college students. Health & Welfare 2020;22(1):115-130. 10.23948/kshw.2020.03.22.1.115.
27. Moon H, Chung MJ, Kim JY. Mediating effect of emotion regul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mental health of nursing student. Korean J Scr Res 2011;19(3):253-260.
28. An HG.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mental health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06;8(6):2249-2263.
29. Lee SH, Shim HJ. A study on the major satisfaction and job preferences of dental hygiene students according to their DISC behavioral pattern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2019;9(5):217-227. 10.22156/CS4SMB.2019.9.5.217.
30. Kim EK, Lee SY, Eom MR. DISC behavior pattern and medication errors by nurses. J Korean Acad Nurs Adm 2013;19(1):28-38. 10.11111/jkana.2013.19.1.28.
31. Kim Y, Gong H, Nam H, Moon J, Lee C, Ko E.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mental health according to DISC behavioral styles in nursing university students. Health Communication Research 2018;13(2):223-231. 10.15715/kjhcom.2018.13.2.223.